

이달의 이슈 | 02

서울 창업생태계의 주역, 코워킹스페이스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younghwankim@stepi.re.kr

1. 서울의 창업 대중화 현상

최근 몇 년간 한국에 창업 대중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서울은 창업을 꿈꾸는 청·장년 예비창업자들이 자신의 사업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여드는 한국 창업대중화의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업대중화의 경향은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신설법인 수의 증가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서울시 신설법인 수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24,747	27,537	30,364	10.8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14년, 2014~2015년의 증가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자료 중소기업청, 신설법인동향(2016.9.기준)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박사(기업가정신),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연구원,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방문연구원, 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
- 최근 연구: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연구,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연구,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심층 분석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기업가정신 국제비교를 통한 창업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개발 연구 등

서울에는 창업기업(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코워킹스페이스, 벤처캐피탈, 정부기관, 미디어 기업 등 다양한 지원 조직 상당수가 위치해 있다. 이들 지원 조직을 통해 스타트업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투자 자금을 유치하며, 우수 인력을 찾는다. 자체 자원이 부족한 창업자와 스타트업은 외부 자원과 정보의 활용 및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다양한 창업 지원 조직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된다.

특히 서울의 창업생태계는 '역삼 스타트업 밸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역삼 스타트업 밸리는 강남역부터 역삼역 일대에 구성되어 있는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기관의 밀집 지역을 의미한다.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청 주도 창업지원 기관인 TIPS타운과 함께 다양한 민간 창업지원 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창업지원 기관에 입주한 기업을 포함해 많은 스타트업이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곳 역삼 스타트업 밸리로 모여들고 있다.

2.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의 특성과 필요성

창업대중화를 이끄는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지원 조직 중에서도 코워킹스페이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코워킹스페이스란 서로 다른 소속의 전문가 또는 프리랜서들이 같은 업무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협업 공간을 뜻하는데, 2005년 샌프란시스코의 'Hat Factory'를 그 시초로 보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Citizen Space'는 최초의 업무 전용 코워킹스페이스로 알려져 있다.¹

창업과 관계된 다양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공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창업지원에 특화된 코워킹스페이스가 생겨나게 되었다.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는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사업화 및 창업)하기 위한 교류 및 협업 공간을 의미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법률 등 다양한 지원 조직의 관계자들도 함께 업무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는 단순한 공간 제공과 지식 공유의 목적을 넘어 네트워킹 및 인맥 형성, 투자 결정, 사업 계약, 합병 등 스타트업의 주요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에게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서 코워킹스페이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영환, 2015).

¹ Wikipedia, 2015, "Coworking", <http://en.wikipedia.org/wiki/Coworking>(2015.5.19)

창업생태계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는 2011년에 설립된 ‘로켓스페이스(Rocket Space)’에 180개의 스타트업과 700여 명의 창업 인력이 입주하여 코워킹 공간 및 독립 사무 공간,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곳은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의 중간 형태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캠퍼스를 표방한다. 로켓스페이스를 통해 ‘우버(Uber)’, ‘자포스(Zappos)’ 등 글로벌 성공 기업이 탄생했으며, 입주 기업들의 총 유치 자금이 30억 달러가 넘는다(정세롬, 2014).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중 창업 지원 정책과 함께 민간의 코워킹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성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 근교 중관촌에 위치한 창업거리(INNO WAY)의 ‘차쿠(車庫)카페’이다. 2011년 설립된 200명 규모의 카페 형태의 공간인 차쿠카페는 월정액으로 카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카페 내에 창업자들의 사업 아이템 데모가 시연되고, 인재 채용 공고가 벽면에 붙어 있어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서로 교류할 수 있다. 또한 매일 오후 동료 창업자와 투자자 대상으로 사업 모델에 대한 발표회가 개최된다. 2014년 말 기준 130여 개 회사가 차쿠카페를 통해 창업했고, 70여 개 회사가 자금 조달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INNO WAY 내 ‘3W카페’, ‘빙고카페’, ‘IC카페’ 등 다양한 창업카페와 함께 중국의 민간 중심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동훈, 2015).

3. 서울의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서도 코워킹스페이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서울은 창업자에게 필수적인 투자,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법률 등 다양한 지원 조직이 밀집해 있고,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도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대표적인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는 ‘D.CAMP’, ‘마루180’, ‘구글캠퍼스 서울’, ‘TIPS타운’ 등이 있다. TIPS타운을 제외하고는 주로 민간을 주체로 설립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1)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D.CAMP는 2013년 3월 대형 시중은행들 출자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설립한 최초의 민간 창업생태계 허브이다. 투자,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창업생태계 3대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목표로 한다. D.CAMP는 ‘D.’를 브랜드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리는 ‘D.DAY’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제품/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초기 스타트업이 5분 발표(pitching)를 하고, 전문투자자 및 업계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청중이 심사위원이 되어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사업성이 높은 스타트업은 'D.ANGE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D.CAMP 내 사무 공간 및 투자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D.CAMP는 스타트업 보육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한 이벤트홀, 개방형 협업 공간, 라운지와 유료 사무실, 카페 등을 보유하고 있다. 출자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펀드와 분야별 창업지원 펀드, 액셀러레이터 등과의 매칭 투자 등 투자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방문인원 17만여 명, 자체 프로그램 300여 회, 개최 이벤트 2,600여 건, 스타트업 지원 3,300여 건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2016년 3월 기준).^②

2)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마루180은 2014년 4월 아산나눔재단이 설립한 창업 관련 종합 솔루션 제공 공간으로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해 있다.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 공간뿐 아니라 벤처캐피털(캡스톤파트너스, DSC인베스트먼트) 및 액셀러레이터(스파크랩, 퓨처플레이) 등이 함께 입주하여 복합 창업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교육, 콘서트, 네트워킹 이벤트를 무료로 개최하는 이벤트홀과 코워킹 및 네트워킹을 위한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16인 이하의 직원 수를 보유한 스타트업 중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하며, '망고플레이트', '모두의 주차장', '엠버스', '웨이', '플리토', '드라마앤컴퍼니' 등 성공 졸업 기업을 배출했다. 마루180은 투자, 홍보, UI/UX,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1:1 방식의 멘토링랩(Mentoring Lab)을 매주 개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출시 전에 시험해 볼 수 있는 디바이스랩(Device Lab)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산나눔재단의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3) 구글 '구글캠퍼스 서울'

구글캠퍼스 서울은 구글이 만든 아시아 최초의 창업가 전용 공간으로 영국 런던 및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2015년 5월 서울에 설립했다. 구글캠퍼스 서울은 마루180이 스타트업 입주 및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구글은 우수 개발 인력 및 사업화 전문 인력들의 멘토링 서비스나 구글캠퍼스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글캠퍼스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보다 해외 우수 창업인력의 국내유입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허브를 표방하며, 특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콜버스랩', '플런티' 등 6개 스타트업과 '스트롱벤처스', '500스타트업', '글로벌브레인'과 같은 벤처캐피털이 입주해 있다.

^② D.CAMP 브로슈어(한글),
[http://dcamp.kr/files/
 dcamp_br_ko.pdf](http://dcamp.kr/files/dcamp_br_ko.pdf)

4)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Startup Factory)는 2015년 설립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원 조직으로 액셀러레이터를 표방하고 있다. 기술 개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선발한 스타트업들에게 네이버의 기술 전문가들을 통한 멘토링, 네이버 인프라를 활용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른 코워킹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기술 기반 창업 활동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5) 중소기업청 'TIP스타운'

이렇게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조성·운영되어 온 코워킹스페이스의 역할을 공공에서도 주목하게 되면서 TIPS타운이 탄생했다. TIPS타운은 중소기업청의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공간으로, 하나의 건물이 아닌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창업지원 조직이 밀집된 창업가 거리나 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TIPS타운은 현재 역삼동(해성빌딩, 명우빌딩)에 조성되어 TIPS프로그램 운영사(액셀러레이터) 중 6곳과 스타트업 50여 개가 입주해 있다.

6) 민간 프랜차이즈형 비즈니스센터

한편 창업대중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코워킹스페이스들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초 민간 비즈니스센터인 르호봇(Rehoboth) 비즈니스센터는 전국 41개의 센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창업자를 위한 사무 공간, 회의 공간, 비즈카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위치한 자체 창업보육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 창업자들을 위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온(BizON) 역시 소호사업자, 1인 창조기업, 프리랜서들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를 표방하며 서울 내 8개의 프랜차이즈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7) 해외 글로벌 기업의 진출

코워킹스페이스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그룹 마블스톤의 공식 액셀러레이터 브랜드인 10K는 2015년 하반기부터 한양대와 교대 부근에 미국의 코워킹스페이스 '위워크(WeWork)'와 액셀러레이터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를 결합한 형태의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은 스타트업 코워킹스페이스 '스파크플러스'를 2020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8) 소규모 코워킹스페이스

최근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 내 소규모 코워킹스페이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문을 연 ‘피치트리’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이며, 초기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피치트리에 입주한 회사들은 오픈된 사무공간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한쪽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등을 통해 업계의 유용한 최신 정보나 이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피치트리는 입주한 스타트업에게 재무, 회계, 디자인, 앱 개발 등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강남역삼동 주소로 사업 소재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16년에는 신논현역 부근에 2호점을 오픈했다. ‘하이브아레나’도 워드프레스 관련 창업 경험을 보유한 두 명의 대표가 교육과 코워킹스페이스의 결합 필요성을 느껴 설립한 코워킹스페이스로, IT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디지털 노마드와 창업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에게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 업무 공간, 3D 프린터 등의 시설을 회원제로 제공한다.

소규모 코워킹스페이스는 특히 1인 창조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 공간 제공, 세무, 법률 등의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코워킹스페이스에 정부가 경영지원비,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사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서울 내에 공공 및 민간의 19개 센터가 위치해 있다.³⁾



³⁾ K-Startup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 소개
- <http://bit.ly/1T9IHff>

주 이 그림에 표현된 위치는 청년위원회에 자체 등록한 지원 기관만 표시되어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청년위원회, 청년포털-창업 핫 플레이스(2016.11.9.기준)

(그림 1) 서울의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분포

4.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발전 방향과 시사점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과 창업 활동의 대중화에서 코워킹스페이스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코워킹스페이스를 개설·운영하면서,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투자,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법률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창업자 개인의 환경과 역량에 적합한 코워킹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코워킹스페이스 대부분이 밀집하여 코워킹스페이스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위한 자금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코워킹스페이스에서 창업자와 투자자, 창업자와 우수 개발 인력 간의 만남과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지역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코워킹스페이스가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의 제공을 사업 모델로 창업한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와 창업생태계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역삼 지역에 밀집한 코워킹스페이스가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도 조성되어야 한다.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수요가 높은 지역(예: 마포, 상암, 대하로 등)을 선정하여 다양한 주체의 코워킹스페이스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창업 수요의 한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청년 밀집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다양한 창조 활동에 초점을 두는 코워킹스페이스를 만들어 창업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워킹스페이스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코워킹스페이스의 대중화 경향으로 늘어난 코워킹스페이스의 수에 비해 운영 프로그램은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업화, 재무, 회계, 경영, 법률 등 전문 창업지원 인력 풀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으나, 창업자의 창업 환경 및 개인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노력이 부진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가 창업 정보를 습득하고 인력을 발굴하는 미국이나 중국의 우수 사례와 달리 업무 공간의 활용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 분야별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구성이 다양화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이러한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코워킹스페이스마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 풀 및 창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워킹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창업 관련 활동과 논의로 축적되어가는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코워킹스페이스 내의 운영 프로그램이 대부분 일회성의 이벤트 및 네트워킹 행사에 집중되어 다양한 전문가의 창업 관련 지식 혹은 노하우의 전파가 어렵고, 창업이나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코워킹스페이스는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논의된 많은 지식을 취합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혹은 공공 기관 등과의 연계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업 지식 및 노하우의 공유·확산은 공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코워킹스페이스 간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식 공유·확산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

셋째, 코워킹스페이스를 통해 많은 창업 성공 사례가 나타나야 한다. 코워킹스페이스의 공간 활용 및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해 창업 자원을 조달하고 창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 창업자들이 해당 사업 및 기술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게 된다면 창업생태계 내 코워킹스페이스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코워킹스페이스가 단순히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유망 창업자들의 성공을 위한 맞춤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창업자와 창업 스토리를 사례로 정리하는 작업은 많은 (예비)창업자가 이를 자신의 역할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환, 2015,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STEPI Insight 제164호
2. 이동훈, 2015. 3. 16., “220m 거리에 창커 4만여 명 복직 테이블 1개서 10개 회사 탄생 - 베이징 중관촌 車庫 카페를 가다”, 주간조선
3. 정새롬, 2014. 9. 25., “18조 원 우버도 ‘로켓 스페이스’에 올라타지 않았다면 탄생하지 못했다 - 던칸 로건 대표 인터뷰”, 비석세스(BeSuccess)